

『韓國漢字語辭典』의 借字와 借字語, 吏讀와 吏讀語*

오 창 명**

국문초록

이 연구는 1990년대 초·중반에 단국대학교에서 발간한 『韓國漢字語辭典』의 수정·증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사전의 借字와 借字語, 吏讀와 吏讀語에 대하여 수정하고 증보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검토한 것이다.

먼저 기존 사전의 借字와 借字語의 표제어와 註釋, 예문 가운데 수정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피고, 이어서 증보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借字에 대해서는, 仍과 蒞이 우리말 차자 표기에 서 ‘나-, 느-’ 등으로 쓰이는데, 이 사전에서는 그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제대로 소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등을 논의하였다. 借字語에 대해서는, ㄱ飛箇와 未飛介 등에 제시한 독음이 지나치게 현대적이라는 것, 註釋이 일관되지 않다는 것 등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기존 사전의 吏讀와 吏讀語의 표제어와 설명, 예문 가운데 수정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피고, 이어서 증보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吏讀와 吏讀語에 대해서는 望良白內臥乎事 是亦在와 望良白內臥乎事是在亦 등을 표제어로 등재할 때, 이 통합형 하나만 등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형태 분석형인 望良-, -白-, -內-, -臥乎, 事, 是-, -亦在, -在亦, -在, -亦 등을 일일이 등재하여 주석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韓國漢字語辭典(한국한자어사전), 借字(차자), 借字語(차자어), 吏讀(이두), 吏讀語(이두어)

목 차

- | | |
|-------------------|-------------------|
| I. 序 言 | III. 修訂·增補 辭典의 방향 |
| II. 기존 辭典의 현황과 문제 | IV. 마무리 |

* 『한국한자어사전』 권1(1993)의 〈일러두기〉에서 ‘國義, 차자어, 吏讀, 이두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가능한 이를 준용했다. 그러나 ‘借字’라는 말에는 음가자, 음독자, 훈가자, 훈독자 등으로 쓰인 글자를 아우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가능한 한 ‘국’의 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차자어’라는 용어도 차자한 것이 형태소나 단어 단위 이상에 걸친 것을 이르는 듯하다. 한편 ‘이두’와 ‘이두어’라는 말도 ‘차자’와 ‘차자어’에 포함시키거나 동일한 뜻을 가진 용어로 쓰곤 한다. 그러나 이 사전에서는 이두 어휘집 따위에서 언급했던 ‘이두’에 한정할 듯하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그에 준용하도록 한다.

이 글은 지난 2015년 10월 23일에 있었던 ‘제7회 동양학연구원 사전학 학술회의(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주최)’ 때 발표했던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제주국제대학교 특수대학원 해양문화콘텐츠학과 주임교수 / garinyeo@naver.com

I. 序 言

『韓國漢字語辭典』 권1~권4(1992~1996: 이하 ‘이 사전’이라 함.)는 올바른 고전 해독을 위하여, 그리고 국학 연구의 길잡이 역할을 위하여, 우리나라 문헌에서 채록한 한자와 고유 한자, 한자어를 모아서 주석한 사전으로, 1992년에 제1권과 제2권, 1995년에 제3권, 1996년에 제4권 등 4권이 세트로 간행되었다.

당시 『삼국유사』 등 150여 종의 3,500여 책을 대상으로 해서, 한자 약 6,000여 자, 어휘수 약 15만 단어를 수록했다.

앞으로 이 사전을 修正・增補한다고 하기에, 이 글을 통해서 한국 한자어의 借字와 그것에 연관된 어휘, 吏讀와 그것에 연관된 어휘 등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먼저 기존 사전의 借字와 吏讀에 대해 검토하고, 수정・증보 사전에서는 借字와 吏讀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고, 어떻게 주석하고 설명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특히 효과적인 수정・증보 사전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사전의 문제와 오류를 바로 인식해서 바로 잡은 뒤에, 누락된 차자와 어휘를 대폭 추가해야 한다. 이 글에서 이런 것을 중점으로 논의한다.

우선 이 사전 제1권의 〈일러두기〉를 보면, “우리 문헌에서 채록한 한자 및 한자어를 모아 주석”했다고 했다. 또한 “우리 문헌에서 채록한 어휘를 바탕으로 하여 한자 및 고유 한자와, 중국·일본에서 간행된 자전과 사전에 수록되지 아니한 한자어들을 수록”했다고 했다.

결국 ‘한국 한자어’의 범위는 “우리나라 문헌에 기록된 한자와 고유 한자”를 말하되, “중국이나 일본에서 간행된 자전이나 사전에 수록되지 아니한 한자어”를 말하는 것이다.

한편 이 책의 같은 권 〈일러두기〉의 ‘문자 및 어휘의 선택과 배열’에서, “우리 고문헌을 독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인명·지명……이두·차자어·동식물명……등을 선별하여 수록”했다고 했다. 이들 중에는 중국 한자로 기록된 것도 있지만 고유 한자로 기록된 것도 있다.

이 책의 같은 권 〈일러두기〉의 ‘문자 및 어휘의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이 借字와 吏讀 주석 예를 보였다.

8. 우리 나라에서 만들어 써 온 고유 문자와 동일한 한자이면서 우리 나라에서만 쓰이는 음(音)·훈(訓)이 있는 글자는 한글로 적시한 음 앞에 부호 *를 써서 명시하고, 그 글자 아래에 國字·字源·國號·吏讀의 난을 두어 간단히 해설하였다. 다만, 동일한 한자이면서 음(音)은 같고 훈(訓)만 다르게 쓰이는 글자는 부호 *를 붙이지 아니하였다.

예 1:

𪛗 *갈

國字 音은 갈. 뜻은 없다. 《度支準折, 肉物》牛𪛗非一代. 國號 우리말의 “갈” 음을 표기하기 위하여, 가와 乙을 결합하여 만든 글자. 가의 음 “가”에, 乙의 음 “을”의 중성 “ㄹ”을 결합하여 “갈”이 된다.

예 2:

乙 새 을

國號 을. 를. 목적격 조사로 쓰인다.

예 3:

赤 불을 적 *치

國號 ㉠틀림 없이. 분명히. 《朝鮮肅宗實錄 14 上, 補闕正誤, 9年2月甲戌》時烈既氣衰, 不能不牽繫情私, 遂變初見, 揚言少輩將殺益勸, 斥得一甚峻. 閔鼎重亦以此見疎, 對人輒言左相豈非赤外戚(赤, 方言分明也). ㉡치. 사람이란 뜻을 나타내는 말. 몽고어의 사람이란 뜻을 나타내는 “chi”의 음역으로 쓰는 글자이다. 《高麗史 82, 兵志, 宿衛》十五年八月, 忠烈王即位, 以衣冠子弟, 嘗從爲禿魯花者, 分番宿衛, 號曰忽赤. 《朝鮮太宗實錄 19, 10年5月癸酉》上謂承政院曰, 內吹螺赤, 若常在關門外, 遇有出令, 然後召入, 非有事機之緩, 人皆豫知, 可使分番, 入直于速古赤房.

예 4:

叔 아제비 숙

國號 아주머니. 남편의 형. 《與猶堂全書, 雅言覺非》叔, 東俗, 夫兄亦謂之叔氏(呼之曰阿自般伊).

9. 어휘의 독음은 현재 통용하는 한자 음에 따르고, 차자어·이두·구결은 고유의 독음에 따랐다.

예:

【古沙 코사】 ㉠一코사. 하고야. 《地藏菩薩本願經, 中, 如來讚歎品》過是劫已古沙, 方受餓鬼爲也, 又經千劫爲也, 復受畜生爲也, 又經千劫爲古沙, 方得人身爲飛尼.

【奈何 불내하】 어찌하지 못함. 어쩔 수 없음. 《古今釋林 15, 洛閩語錄, 釋語》奈何何. 아모라다 못하려니와.

【不毒只 부독기】 ㉠부디기. 夫都只. 夫獨只. 浮獨只. 《度支準折, 袷巾衣裳》不毒只白苧布一尺五寸.

【不多 안들】 ㉠아니. 아니하다. 《瀋陽狀, 啓, 戊寅3月18日》至今變通不多, 前頭之事, 亦甚難堪, 極爲悶慮爲白齊. 《大明律 10, 戶律, 市廛, 把持行市, 直解》買者賣者, 和同不多, 市裡凡事乙, 擅權爲, 專取其利爲協. 《儒胥必知, 彙編》不多, 안들.

【地頭乙戶邑 땃돌흙】 ㉠땅두름. 두름나 무과에 속하는 다년초. 《鄉藥集成方, 鄉藥本草, 草部》獨活, 鄉名地頭乙戶邑(땃돌흙)뿌리·땃돌흙뿌리.

10. 동일 어휘의 첫자의 독음이 둘인 경우에는 ① ②의 부호를 써서 구별하였다.

예 1:

【去乃 ①거나 ②커나】 ①㉠一거나. 하거나. 《大明律 20, 刑律, 鬪毆, 妻妾毆故夫父母, 直解》必于舊奴婢去乃, 本主乙毆打爲乎第亦中, 罪重爲去有良尔. ②㉠一커나. 하거나. 《地藏菩薩本願經, 上, 初利天宮神通品》若未來世曳, 有善男子善女人伊, 聞是菩薩名字爲古, 或讀歎去乃, 或瞻禮去乃, 或稱名去乃, 或供養去乃, 乃至彩畫刻鏤塑漆形像爲面.

예 2:

【上使 ①상사 ②우에브리】 ①두 사람 이상의 사신 가운데서 정사(正使)를 부사(副使)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朝鮮成宗實錄 132, 12年8月丙午》傳于吏·兵曹曰, 上使別通事金渚·崔潑, 副使別通事孫重根, 各加一資. ②㉠위에 올린다. 《農圃集 3, 巡營懷報》非但目所不見, 實爲耳亦不聞乙仍于, 上使不得爲協. 《壬辰狀草, 萬曆20年6月14日》倭將頭段, 同李純信別標, 上使爲白有齊. 《紹修書院謄錄, 嘉靖26年3月初5日》婢子以定屬爲去乎, 使押直同郡, 交付爲去乎, 受到付上使向事.

【上下 ①상하 ②차하】 ①시문(詩文)을 평정하는 아홉 등급 가운데의 세째 등급. 上之下. 《慵齋叢話 6》孫永叔爲吏曹正郎……一日儒生持所製詩文, 來取品題, 妓問曰, 何以辨別優劣. 永叔曰, 最妙者爲上上·上中·上下, 其次爲二上·二中·二下, 又其次爲三上·三中·三下, 其不入品者爲次上·次中·次下, 最劣者爲更之更. ②㉠치려 주다. 《壬辰狀草, 萬曆20年7月15日》不至重傷人等段, 藥物上下, 十分救療亦, 各別嚴勅爲白齊. 《大明律 7, 戶律, 倉庫, 那移出納, 直解》各司捧上上下下錢糧等物亦, 重記施行爲有去乙. 《儒胥必知, 彙編》上下, 차하. 《古今釋林 40, 羅麗吏讀, 釋詁》上下, 차하. 《五洲衍文長箋散稿 48, 語錄辨證說》上下, 차하. 《行用吏文》上下, 차하. 官財出給也, 如貢物價上下之類.

II. 기존 辭典의 현황과 문제점

1. 借字로 쓰인 고유 한자와 한자어

(1) 기존 사전에 수록된 고유 한자와 한자어

우리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음절말에 자음의 받침을 가지고 있는 말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음절 말자음을 어떤 글자로 표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까지 표기자나 표기법을 정할 때 관심거리였다.

향가에서 이미 우리말 ‘밤【夜】’을 ‘夜音’으로 쓰거나, ‘시름【憂】’을 ‘憂音’으로 쓰거나, ‘길【道】’을 ‘道尸’로 쓰거나, ‘잇【有】’을 ‘有叱’로 썼다는 것 등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사전에 올라 있는 것 가운데, 음절말자음 표기의 예 몇 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리말 음절말자음 ‘ㄱ’을 반영한 차자
𪛗【격】

우리말 음절말자음 ‘ㄴ’을 반영한 차자
乙部 : 𪛗·𪛗【굴】 𪛗·𪛗【살】 𪛗【할】 𪛗【글】 𪛗·𪛗【돌】 (五+乙)·𪛗·𪛗【을】 𪛗【갈】 𪛗【걸】
𪛗【들·길】 𪛗·𪛗【놀】 𪛗·𪛗【돌】 𪛗【물】 𪛗【줄】 𪛗【볼】 𪛗【길】 𪛗【뜰】 𪛗【솔】 𪛗
【얼·늘】 𪛗【줄】 𪛗【잘】 𪛗【골】 𪛗【설】 - 29자

우리말 음절말자음 ‘ㅅ’이나 ‘ㅈ’을 반영한 차자
叱【ㅅ·ㅈ】 𪛗·𪛗【뽕】 𪛗【잇】 𪛗【긔】 𪛗【긔】 𪛗【긔】 (五+乃+叱)【긔】 𪛗【뽕】 𪛗【긔】 𪛗
【긔】 𪛗【긔】 𪛗【긔】 𪛗【긔】 (始+叱)【비긔】, 𪛗【긔】 𪛗【긔】 𪛗【긔】

(2) 기존 사전 누락된 고유 한자와 한자어

이 사전에 누락되어 있는 음절말자음 표기 가운데, 올려야 할 것 몇 개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우리말 음절말자음 ‘ㄱ’을 반영한 차자
去ㄱ【격】: 周去ㄱ【주격】
𪛗【족?】: 𪛗ㄱ丁·𪛗ㄱ釘(이상 도구)

우리말 음절말자음 ‘ㄴ’을 반영한 한자
𪛗【갈】: 𪛗化 (지명)
去乙【걸】: 去乙安之【걸안지】
道乙【돌】: 道乙迪耳【돌찌귀】

小乙【술】: 小乙五【소로】

地乙【딜】질: 地乙介【딜개】질개¹⁾

知乙【딜】질: 看知乙介【간딜개】간질개²⁾

助乙【졸】: 助乙里【조리】조리>*졸리>조리】

草乙【출】: 夫草乙【부출】

恣【출/출/찰】: 付叱恣【부출】부출, 扶恣【부출】부출, 門浮恣【문부출】문부출】

𪛗【돌】, 𪛗【절】, 𪛗【졸】

우리말 음절말자음 ‘ㅅ’이나 ‘ㄷ’을 반영한 차자

所叱【숯】: 所叱同【숯동】(물명)

𪛗【것】: 𪛗心【*것심】(물명), 𪛗𪛗【들것】(물명), 𪛗申嶺【*것곳재】(지명)

𪛗【덧】: 𪛗方·𪛗防·𪛗枋【덧방】, 𪛗朴只【덧박이】(물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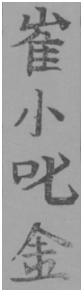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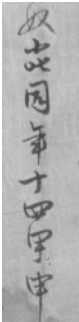
付ㅅ【붓】: 付ㅅ朴只【붓바기】

우리말 음절말자음 ‘ㅁ’을 반영한 차자

耨【눔】: (『己丑 國恤謄錄』 권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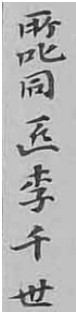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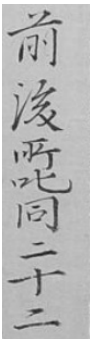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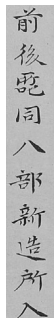
인명이나 지명 등에 쓰였던 𪛗(숯)은 이 사전에서 보이지 않는다. 𪛗이 小叱로 표기된 것은 두 글자로 표기하고 ‘숯’ 또는 ‘숯’으로 읽을 수밖에 없지만, 한 글자 𪛗으로 표기된 것은 𪛗으로 쓰고 음이 ‘숯’ 또는 ‘숯’이라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쓸 수 없다면 편의상 小叱로 쓸 수밖에 없다.

한편 각종 의궤에서 우리말 ‘숯’에 대응하는 표기로 썼던 所叱(읷자는 所, 아랫자는 叱. 프로그램에서 한 글자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편의상 두 글자로 표기했음.)도 보이지 않는다.

				
조선왕조실록과 호구단자 등				

1) 독음과 현대국어의 ‘딜개’와 ‘디딜개’와 통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2) 稍繩 간지개 <『한청문감』(1770?) 5:23>

				
의례류				

仍과 仍은 우리말 차자 표기에서 ‘너-, 느-’ 등으로 쓰이는데, 이 사전에서는 그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제대로 소개하지 못하고 있다.

仍 인할 잉

【仍朴船 잉박선】 罔 너박선. 너비가 넓은 배. …….(제1권. 244~245쪽)

仍 폴삭 잉

【仍子 잉자】 녀자. 도장을 찍을 때에, 인발을 똑똑히 내기 위하여 밑에 받치는 사슴의 가죽.

《行用吏文》 仍子, 녀자, 印方席也. …….(제3권. 950쪽)

지명이나 분재기 등에 보이는 仍邑이나 仍邑 등은 ‘넙’이나 ‘늑’으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도 사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地乙介【딜개】질개와 看知乙介【간딜개】간질개에서 확인되는 地乙과 知乙은 본디 고유어 ‘딜’을 표기한 것인데, 오늘날은 ‘질’로 읽는 사람이 많다.

현대국어 ‘작은’과 ‘적은’에 대응하는 중세국어는 ‘적원저근’, ‘작원자근’ 등으로 실현되었다. 이 ‘적은’이나 ‘작은’에 대응하는 표기는 小斤, 者斤, 子斤 등으로 차자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것들이 小 항목의 예문에 보이지 않는다.

婢 小斤夫萬, 婢 小斤自恭 (分財記)

次子 小斤老味 (事變日記 권24, 乾隆三十二年丁亥八月 初二日)

小斤古介 (攷事新書 권4, 烽燧)

李裕基女子 小斤召史 (莊陵謄錄, 成宗朝實錄)

金子斤伊【*김작은이】(의궤, 인명)

金者斤同【*김작은동】, 朴者斤老味【*박작은똥】, 朴者斤阿只【*박작은아기】(의궤, 인명)

이 사전에 누락된 고유 한자와, 그 한자를 포함한 차자어는 조선 시대 고문헌에서 여럿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수정·증보 사전에는 가능한 한 이러한 것들을 많이 수록해야, 한국 한자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기존 사전의 독음과 주석의 문제

이 사전에는 차자어의 讀音과 注釋에 오류가 있거나 잘못되어 있는 것이 많이 눈에 띈다. 몇 예만 들어 본다.

① 末乙飛介【말늘개】마늘개, 𠂔於乙介【말늘개】마늘개

【수飛乃 마늘개】 𠂔 마늘개. 주전자. 𠂔飛箇. 《行用吏文》 銅수飛乃, 구리 마늘개, 酒煎子也.
(제1권, 121쪽)

【𠂔飛介 마늘개】 𠂔 “𠂔飛箇”와 같다.……(제1권, 180쪽)

【𠂔飛箇 마늘개】 𠂔 마늘개. 주전자. 𠂔飛乃. 𠂔飛介. 末飛介. 𠂔飛卩, 末乙飛介.…….
(제1권, 180쪽)

【末飛介 말날개】 𠂔 말날개. 마늘개. 곧 주전자의 옛말. 𠂔飛乃. 𠂔飛介. 末乙飛介. 𠂔飛箇.…….
(제1권, 180쪽)

【末乙飛介 말날개】 𠂔 “𠂔飛箇”와 같다.……(제2권, 844쪽)

위 예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석이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수정·증보 사전에는 독음과 주석 따위를 일관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차자어의 독음이 지나치게 현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현대적인 독음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차라리 《行用吏文》 등에 보이는 근대국어의 ‘마늘개’를 넣는 것이 더 효과적인 듯하다.³⁾

한편 이에 대응하는 표기로 이보다 앞선 자료를 추가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𠂔乙介【말늘개】, 𠂔於乙介【말늘개】 등이다.

銅𠂔於乙介蓋具一 〈『仁敬王后國葬都監都廳儀軌』(1681) 권2〉

𠂔乙介一 重三斤四兩 〈光海君私親 追崇都監儀軌(1610) 三房所掌, 成陵祭所用鑄送〉

『仁顯王后 國葬都監都廳儀軌』(1701) 권下(稟目秩, 辛巳九月初四日)와 『端懿嬪喪葬謄錄』(1719) 권2(戊戌二月十一日)에서 확인되는 “銅子於乙介蓋具”에서 子는 𠂔의 오키로 보인다.⁴⁾ 그러므로 𠂔於乙介는 【말늘개】

3) 銅수飛乃【구리마늘개○酒煎子也】〈行用吏文〉.

의 차자표기이고, 銅_ㄴ於乙介는 ‘구리마늘개’의 차자표기이다. 이들도 당연히 표제어로 등재해야 한다.

이 ‘마늘개’는 쇠로 만든 것과 사기로 만든 것이 있었는데, 쇠로 만든 것은 銅_ㄴ飛介나 銅末飛介 등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원래 ‘마늘개’는 사기로 만든 것을 칭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쇠로 만든 것은 일찍부터 ‘쥬전즈’라 하고, 나중에는 酒煎子로까지 표기하고, 나중에는 ‘마늘개’라는 말이 사어화한 것이 아닌가 한다.

銚 燒器 無足鎚也 今俗呼銅銚 쥬전즈 <『사성통해』(1517) 하:14>

銚 쥬전즈 도 俗呼銅銚 <『훈몽자회(예산 문고본)』(1527) 중:6~7>

茶壺子 쥬전즈 <『역어유해보(1775)』 43>

酒注 注子 쥬전즈 <『물보』(1800?) 하:12>

酒煎子鈔兒各一盞蓋具三部則 <『英祖國葬都監都廳儀軌』(1776) 권1>

② 法乃【줄녀】즈래

【法乃 거내】 𣎵 거래. <제4권. 336쪽>

위 예문의 法乃是 ‘거내’로 읽히는 차자가 아니라, ‘즈래’ 또는 ‘줄릭’ 정도로 읽히는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자래’로 등재되고, “심마니들의 은어로, ‘떨나무’ 또는 ‘생나무’를 이르는 말”이라 했다. 그러나 제주방언에서는 ‘줄레’나 ‘줄리’로 전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에 대응하는 표기이다. 이 말은 한 짐으로 질 만한 나무의 묶음을 세는 단위로, 떨나무를 한 발 한 뿔(뿔)으로 묶은 단위를 이른다. ‘단’보다는 묶음이 큰 것을 이른다. 이 ‘줄레’가 法乃에 바로 통하는 것이다.

『육전조례』를 보면, 正草蓀은 양손을 벌려서 둥글게 한 묶음을 한 즈래(兩手圍爲一法乃 卽一束)라 하고, 떨나무는 여섯 바리를 한 즈래(六駄爲一法乃)라 했다.

그러므로 이 사전의 독음이나 주석은 모두 잘못되어 있으니,⁵⁾ 수정되어야 한다.

③ 肝納【간납】 肝南【간남】 / 煎魚肉)煎油魚 · 煎油兒 · 煎油阿 · 煎油花

【干納 간납】 𣎵 간납. 제사에 쓰는 저냐. 소의 간이나 처넵, 또는 물고기로 만든다. 肝納.

<제2권. 275쪽>

【肝南 간남】 𣎵 “肝納”과 같다.…… <제3권. 888쪽>

【肝納 간납】 𣎵 간납. 제사에 쓰는 저냐. 소의 간이나 처넵, 또는 물고기로 만든다. 肝南. 干納.

<제3권. 888쪽>

4) 이러한 오류는 ㄴ을 丁으로 기록하거나 丁으로 읽어버리는 데서 나오기도 했다.

5) 이 영향인지는 모르나, <영조정순왕후 가례도감의궤> 번역본에는 ‘거내’로 번역하고,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 번역본에서 ‘저래’로 번역했다. ‘즈래’자래의 차자표기라면 ‘자래’로 번역해야 한다. <승정원일기> 번역본에도 ‘거내’로 번역된 곳도 있고, ‘자래’로 번역된 곳도 있다.

이 사전에는 干納과 肝納, 肝南 등이 등재되어 있는데, 각각 【간납】과 【간남】으로 읽은 뒤에, ‘간납’이라 하고, “제사에 쓰는 저냐”라고 했다.

필자가 파악하기로는 肝納 관련 주석에는 서너 가지 오류가 있다.

첫째, 우리 고유 음식의 본말은 ‘간납’이 아니라 ‘간남’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국어사전에도 ‘간남’은 등재되어 있지 않고, ‘간납’만 등재되어 있다. 이것은 기존의 고유 음식 용어사전을 거의 그대로 베끼는 과정에 나온 오류로 파악한다.

둘째, ‘간납(간납?)’과 ‘저냐’는 다른 음식이라는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도 “간납(干納/肝納) : 제사에 쓰는 저냐. 소의 간이나 처넵 또는 생선 살 따위로 만든다.”, “저냐 : 얇게 저민 고기나 생선 따위에 밀가루를 묻히고 달걀 푼 것을 썩워 기름에 지진 음식.”이라고 되어 있다.

셋째, ‘간남’은 제사에만 쓰는 것이 아니다.

이 세 가지의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迎接都監宴享色儀軌』(1643)와 『莊祖獻敬后嘉禮都監儀軌』(1744)의 乾南과 煎魚肉·煎油魚이다.

下馬宴一牀所入……面俠牀……二行乾南五器式每器 猪肉半部式 鷄兒三脚式 生蛤三十介式 鷄卵八介式 大灰全鰓一貼式 三行煎魚肉五器式每器 煎魚中生鮮一尾式 軟鷄一首式 海參十介式 〈迎接都監宴享色儀軌(1643, 面俠牀)〉

同牢宴二牀每牀所入……面俠一牀式二牀所入……三行乾南五器式十器 生雁 鷄兒 鷄卵 生雉 熟全鰓 四行煎油魚五器式十器 鴨子 獐後脚 中生鮮 鳩子 小雀 〈莊祖獻敬后嘉禮都監儀軌(1744)〉

이 예문들은 下馬宴과 同牢宴 때 먼 협상에 올린 음식을 기록한 것이다. 하마연 먼 협상의 두 번째 줄에 乾南을 놓았는데, 이 乾南의 재료는 猪肉, 鷄兒, 生蛤, 鷄卵, 大灰全鰓 등이다. 세 번째 줄에 煎魚肉(煎油魚: 저냐)이 놓였는데, 재료는 煎魚인 中生鮮, 軟鷄, 海參 등이다. 동뢰연 협상의 세 번째 줄에 乾南을 놓았는데, 재료는 生雁, 鷄兒, 鷄卵, 生雉, 熟全鰓 등이다. 네 번째 줄에 煎油魚를 놓았는데, 재료는 鴨子, 獐後脚, 中生鮮, 鳩子, 小雀 등이다.

이 예문은 보면, ‘간남’은 제사 때는 물론 잔치 때도 쓰고, 魚肉을 재료로 썼다. ‘저냐’에 대응하는 煎魚肉과 煎油魚, 煎油兒의 재료도 魚肉을 썼는데, 기름에 지저내는 것이 다르다. 한편 17세기와 20세기 의궤류와 고문헌 등에서는 乾南과 干南, 肝南, 看藍, 看南, 干覽 등으로 표기되고, 일부에서는 干納과 肝納으로 표기되어 있다.

‘저냐’ 관련 어휘 설명에도 문제가 있다.

【煎油魚 전유어】 ㉮ 물고기로 만든 저냐.…….〈제3권, 291쪽〉

【煎油花 전유화】 ㉮ 저냐.…….〈제3권, 291쪽〉

兩勅使大通官別茶啖六度每一牀所入……乾南灰中全鰻三串式 煎油魚中生鮮三分并一尾式 上末三合式
油三合式 猪肉六兩式 菜一器式隨 節都清醬五夕式 〈迎接都監宴享色儀軌(1643)〉

今閏四月十六日永興 本宮攝行 酌獻禮時 祭物單子……胖煎油花一器 肝煎油花一器 生鮮煎油花…….
〈내각일력, 1792년 윤4월 23일〉

進宴教是時大卓一牀所入……鴨子代生雉煎油魚一器 生鮮煎油魚一器 〈景賢堂受爵時膳錄(1765)〉

위 예문에서와 같이 生鮮煎油魚, 生鮮煎油魚, 生蛤煎油魚 등으로 쓰인 것을 볼 때, ‘전유어’는 “물고기로 만든 저녁”만 일컫는 것이 아니고, 魚肉이나 전복 따위를 기름에 지져 만든 음식을 이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전의 煎油魚 주석은 수정되어야 한다. 17세기 초반 의궤에서는 煎魚肉·煎油魚 등으로 표기된 것이 17세기 후반 의궤류에서는 煎油魚·煎油兒·糞油兒 등으로 표기되고, 18세기 의궤류에서 煎油魚·煎油花, 20세기 의궤류에서 煎油아로도 표기되었다. 煎油魚와 煎油兒는 魚와 아를 생략하여 煎油로도 표기되었다. 이 표기에 해당하는 것이 현대국어의 ‘저녁’이다.

④ 加里【가리·갈이】大加里【?】

이 사전의 1권 623쪽에 加里를 등재하고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예문이 달려있다.

【加里 가리】 𠙴 “加乃”와 같다. 《仁祖國葬都監儀軌, 1房, 己丑9月初5日》 鑲染次長釜子一 長小釜子一 大加里三 禁火釜子三, 《朝鮮光海君日記 153, 12年6月庚申》 營建都監啓曰……大加里二十六坐.
〈1권 623쪽〉

【加乃 가래】 𠙴 가래……. 〈1권 621쪽〉

이 사전에는 표제어 加里가 加乃와 같은 것이라 하고, 예문은 大加里를 들었다. 그런데 예문에 나오는 大加里는 현대국어 ‘다갈솥’에 대응하는 평북방언 ‘다가리’에 대응하는 차자표기이다.⁶⁾ 그러므로 大加里에 나오는 加里는 ‘가래’의 차자표기인 加乃와 뜻이 같은 것일 수가 없다. 한편 이 책에는 大加里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 大加里를 大+加里로 분석하고, 加里는 加乃와 같은 것으로 보았으니, 大加里가 별도 표제어로 등재하지 않은 듯하다. 이러한 것은 모두 수정되어야 한다.

한편 加里는 加里匠【갈이장이】, 加里機【갈이틀】, 瑟加里棵【?】 등에서 보듯이 【갈이】의 차자표기로도 쓰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고, 이에 대응하는 加里는 물론 加里匠도, 加里機도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加里機一坐〈『貞聖王后魂殿都監儀軌』(1757) 권2〉. 加里匠 金得伊 〈『純祖大王追上尊號大王大妃殿加上尊號都監儀軌』(1853)〉. 竹散馬二匹……加里八箇〈『明成皇后國葬都監儀軌』(1895) 권2〉. 瑟加里棵五十箇〈『祭器樂器都監儀軌』〉

또한 加里【가리】는 “삼을 넣어 말리려고 몇 꼭지씩 한데 묶은 것을 세는 단위”인 【가리】의 차자표기로도

6) ‘다가리’는 大加里로도 표기했지만, 多加里 尤加里로도 표기했다.

쓰였는데, 그에 대한 풀이도, 예문도 누락되어 있다. 漆匠所用 手巾次 白紬白苧布鍊布各拾尺式 生綿子伍 加里拾兩 〈『璿源譜略修正儀軌』(1858)〉.

또한 加里_ㄴ長道里·加里_ㄴ掌道里【가리막장도리】·加里幕掌道里【가리막장도리】, 加里椽木【가리--】 등에 서와 같은 어휘에서도 쓰였는데, 이들도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加里_ㄴ掌道里四介〈『思悼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1762) 권2〉. 加里_ㄴ長道里五介〈『孝純賢嬪殯宮魂宮兩都監二房儀軌』 권2〉. 丁字閣進排……加里莫掌道里一柄 〈『文孝世子禮葬都監都廳儀軌』(1786) 권2〉. 肩輿……加里椽木五介 〈『文孝世子禮葬都監都廳儀軌』(1786) 권1〉.

또한 ‘정금나무’에 대응하는 제죽말 ‘종가리’에 대응하는 차자표기는 鍾加里【종가리】로 표기되었는데, 이것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 鍾加里梁竹鐵二介〈『景慕宮樂器造成廳儀軌』(1777)〉.

⑤ 占佛·占弗·簞箒·苫箒【점불】

이 사전에서 占佛을 찾으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占佛 점불】말다래의 덧가죽……〈1권 709쪽〉

【障泥 장니】말다래……〈4권 760쪽〉

이 설명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더욱이 차자어로 인식을 하지도 못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현대 국어 ‘말다래(말을 탄 사람의 옷에 흙이 튀지 아니하도록 가죽 같은 것을 말의 안장 양쪽에 늘어뜨려 놓은 기구)’에 대응하는 옛말 가운데 하나로 ‘점불’(점불 장 障泥 俗呼韃甲兒 又呼馬護衣 〈『훈몽자회(예산 문고본)』(1527) 중:13)〉이 쓰였다고 했다.

그러나 의궤류를 보면, ‘말다래’에 대응하는 月乃와 占佛이 같이 쓰였으니, 月乃와 占佛이 같은 것이라 하는 것은 잘못이다.

竹鞍馬十匹……占佛十【以青花眞粉畫龍鱗】所入草席五立 休紙一斤 狀紙一卷 茜草三斤 眞粉三兩 白紙二卷 青花十五兩眞末五升 阿膠十一兩 白馬鬣一斤五兩 〈『顯宗國葬都監都廳儀軌』(1674) 권2, 凶儀仗〉

한편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占佛이 ‘말다래의 덧가죽’이라 할 수도 없다. 占佛을 만드는 재료가 草席, 休紙, 狀紙, 茜草, 眞粉, 白紙, 青花, 眞末, 阿膠, 白馬鬣 등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말다래의 덧가죽’이라는 주석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占佛은 말안장 위에 까는 자리와 같은 것이다.

또한 이 사전에는 占佛 하나만 등재되었는데, 이외에도 占拂·占弗·簞箒·苫箒 등이 쓰였다. 또한 이들 보다 이른 시기에는 占甫老·占甫兒·韃甫老 등도 쓰였다. 이것을 만드는 틀은 占甫老機라 했다. 또 이것을 만드는 장인은 占拂匠·占弗匠·簞箒匠·苫箒匠, 占甫老匠·占甫兒匠·韃甫老匠이라 했으니, 이들도 모두 표제어로 올려야 한다.

仗馬鞍二部每部所入……占甫老二雙 每雙所入豆錫十二兩式 炭六斗式……占甫老匠所用 占甫老機二
於只條所一巨里 海長竹八介 橫子一[具鎖鑰] 空石一立 <『景宗王世子冊禮都監廳儀軌』(1690) 稟目秩>

한편 占佛과 같은 뜻으로 障泥가 쓰였는데, 이 사전에서는 障泥를 ‘말다래’로 주석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⑥ 召兒와 招兒의 독음과 주석

이 사전의 召兒를 찾으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이 사전의 주석과 그림을 보고서, 『표준국어대사전』의 ‘초의’의 설명과 <행용이문>의 풀이를 서로 비교해 보자.

【召兒 초의】笁 초의. 음식을 볶거나 지지는 데 쓰는 국자처럼 생긴 기구. 招兒. 《進宴儀軌(高宗壬寅) 3, 排設》茶亭一坐(……銀匙櫟蓋具一坐, 銀玲瓏匙一箇, 銀召兒一箇, 銀箸一雙). 《行用吏文》召兒, 초의. 鑪器煮具也.



<召 兒>

초의 <명사> [옛말] ‘쟁개비(무쇠나 양은 따위로 만든 작은 냄비)’의 옛말. 銅銚 초의 <물보(1800?) 하:13>

쟁개비 <명사> 무쇠나 양은 따위로 만든 작은 냄비.

<이상 『표준국어대사전』>

銅銚 銚 勺과 초의 <『물보』(1800?) 하:13>

召兒 초의 鑪器煮具也 <行用吏文>

이 사전의 召兒 주석에서는 “국자처럼 생긴 기구”라 하고 그림까지 보여주고 있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초의’를 “작은 냄비”라 하고, <행용이문>에서는 召兒를 닢그릇으로, 볶거나 지지는 기구라 했다.

그런데 의궤류를 보면 召兒나 招兒는 뚜껑【蓋】과 자루【柄】를 갖추기도 했다. 그렇다면 召兒와 招兒는 “국자처럼 생긴 기구”라 할 수 없다. 더욱이 이 사전의 炒兒의 설명에서는 “남비”라고 하고, 炒兒와 같은 뜻의 표기로 炒煨, 招兒, 召兒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전의 召兒와 招兒의 주석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전에서는 炒兒는 차자어로도 인식을 하지 못했다.

別宮進排……銀有柄招兒蓋具二內[前減一代鑪器減付標啓下]……銀召兒[前減] <『嘉禮都監都廳儀』>

軌: 肅宗7年 辛酉(1681) 5月 日』, 大內進排秩)

丙午閏七月初四日內下器皿……銀召兒……銀有柄召兒—[蓋具] 〈『文孝世子墓所都監儀軌』(1786)』 권 1, 內下)

【抄兒 초의】 𪚩 초의. 음식을 볶거나 지지는 데 쓰는 국자처럼 생긴 기구. 炒兒. 召兒. …….
〈3권 270쪽〉

【炒兒 초아】 남비. …… 〈3권 270쪽〉

⑦ 於由味, 巨頭味, 絲陽髻

조선시대 여자 머리에 없던 가발과 관련된 고유 어휘로, “쑤머리, 밋머리, 낭즈머리, 사양머리(새양머리), 어유미(에유미들릭), 거두미, 첩지(첩지머리), 조지미들릭(조짐머리/쪼지미들릭?/쪼짐머리?), 큰마리” 등이 있었다. 이에 대응하는 한자 표기는 각각 加髻·編髻加首, 本髮·本髮加首, 娘子雙髻, 絲陽髻, 於由味·於餘髻, 巨頭味, 貼髻·貼只, 朝集髻, 佳羅治髻, 大末里 등이 쓰였다.

이 사전에는 이들 가운데 일부는 등재되어 있고 일부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데, 그 독음과 주석에 문제가 있는 것이 보인다.

【娘子雙髻 낭자쌍계】 계집아이의 새양머리. …… 〈1권 1145쪽〉

【巨頭味 거두미】 𪚩 부녀자가 머리 위에 다리로 틀어 엮는 큰머리. …… 〈2권 233쪽〉

【於余未 어여미】 𪚩 “於由味”와 같다. …… 〈2권 704쪽〉

【於由味 어유미】 𪚩 어여미. 어여머리. 於余未. …… 〈2권 704쪽〉

【絲陽髻 사양상투】 𪚩 새양상투. 곧 새양머리를 이르는 말. …… 〈3권 780쪽〉

一 士族妻妾閭巷婦女凡係編髻加首【쑤머리】本髮加首【밋머리】之制一切禁止

一 代髻之式娘子雙髻【낭즈머리】絲陽髻【사양머리】係是嫁前之制不可用之以編髮後髻【본머리의 저근 첩지와 들내를 조곰너어 두가 둥으로 썩고 싯을 당기로 감아 올녀 썩지 쪼지미라】爲之頭上所戴貝依前以簇頭里爲之母論綿絮涼竹皆以黑色外裹 〈중략〉

一 於由味【어유미】巨頭味【거두미】係是命婦常時所著人家讌婚所用勿爲禁斷 〈중략〉

一 常賤女人街上露面之類及公私賤竝許令以本髮加首而貼髻【첩지】加髻【쑤머리】之制各別禁斷各宮房水賜里醫女針線婢各營邑女妓則本髮加首之上戴以加里尓【가리마】以示區別等威之意內醫女仍用昌緞餘則用黑三升

〈이상 『日省錄』 1788년 10월 7일, 備局進加髻申禁節目〉

큰마리……에유미족두리……조지미족두리……첩지……에유미들릭……조지미들릭

〈『경미가례시일기』(1847)〉

大末里……에유미簇頭里……조지미簇頭里……貼只……에유미月乃……조지미月乃

〈『憲宗妃慶嬪金氏順和宮嘉禮時節次』(1847)〉

거두미머리(巨頭味-) : ‘큰머리(예식 때에, 여자의 어여머리 위에 얹던 가발)’의 잘못. ‘큰머리’를 한자를 빌려서 쓴 말이다.

낭자머리 : 쪽 찢 머리.

새양머리 : 예전에, 여자아이가 예장(禮裝)할 때에 두 갈래로 갈라서 땀은 머리.

생머리 : 새양머리(예전에, 여자아이가 예장(禮裝)할 때에 두 갈래로 갈라서 땀은 머리).

어여머리 : 조선 시대에, 부인이 예장할 때에 머리에 얹던 큰머리.

어염 : 어여머리(조선 시대에, 부인이 예장할 때에 머리에 얹던 큰머리).

어유미[於由味] : ‘어여머리(조선 시대에, 부인이 예장할 때에 머리에 얹던 큰머리)’의 잘못. ‘어여머리’를 한자를 빌려서 쓴 말이다.

조짐머리 : 여자의 머리털을 소라딱지 비슷하게 틀어 만든 머리.

〈이상 『표준국어대사전』〉

이상의 예와 주석을 비교할 때, 낭자머리와 새양머리는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전의 【娘子雙髻 낭자쌍계】와 【絲陽髻 사양상투】의 주석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여러 자료를 비교해 보면, 娘子雙髻는 “낭자머리”로 주석을 달면 되고, 絲陽髻는 “새양머리”로 주석을 달면 된다. 絲陽髻의 독음도 【사양머리】라 하면 된다.

한편 이 사전에서 於餘髻, 朝集髻, 佳羅治髻 등은 등재되어 있지 않다. 於餘髻는 【에우미들릭】에 대응하는 차자표기이고, 朝集髻는 【조지미들릭】에 대응하는 차자표기이다. 佳羅治髻는 【가라치들릭】가라치머리⁷⁾ 정도로 읽을 법하다. ‘에우미’와 ‘조지미’는 각각 옛말 ‘에우’와 ‘조지’에 명사형성접사 ‘-미’이 붙은 다음 다시 ‘-이’가 덧붙어서 만들어진 말이라 할 수 있다. 현대국어에서는 각각 ‘어염’과 ‘조짐’ 등으로 실현되고 있다.

이상의 몇 예와 같이 차자어에 대한 讀音과 注釋에 오류가 있는 것이 눈에 많이 띈다. 이런 것은 수정·증보판 사전에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2. 이두와 이두어

(1) 기존 사전에 수록된 이두와 이두어

이두와 관련한 사전을 만들 때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두문에 쓰인 낱자(이두)와, 형태소나 단어 단위 이상을 이루는 어구(이두어)를 어떻게 분리하여 사전의 표제어로 올릴 것인가 하는 것이다.

使奸慝校生無縱行奸之弊事特蒙天恩爲白良結望良白去乎 詮次 差啓向教是事望良白內臥乎事是亦在謹啓
〈『訓局謄錄』(1628~1881) 권23, 癸巳九月初四日〉

祭享段置 設置祠官雖或未易是白乎乃 一如羅陵之古例永定祠式春秋禋享事特蒙天恩爲白良結望良白去

7) 이는 현대국어의 ‘가랑머리(가락머리)’에 대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加羅赤의 음상은 【가라치】일 듯하다.

乎 詮次 善啓望良白內臥乎事是在亦 謹啓據戶曹啓目粘連啓下是白有亦 〈『駕洛三王事蹟考』(1851) 권1, 英廟朝 啓下關文〉

예를 들어 위 이두문을 읽다 보면, 望良白內臥乎事是在亦 또는 望良白內臥乎事是在亦로 쓰인 이두 묶음이 있다. 이 이두 묶음을 사전에 제대로 올리려면 다음과 같이 이를 분석한 것과 묶음의 것을 아울러 올리고 독음과 주석을 달아줘야 한다.⁸⁾ 그런데 기존 사전에서나 이 사전에서도 그것을 반영하지 못한 듯하다. 분석을 하게 되면 국어사전과 같이 붙임표(-)를 활용할 필요도 있는데 이것도 활용하지 못했다.

望-
望良
-良
-白
-內
-臥
-臥乎
-乎
事
是-
-亦
-在
望良白內臥乎事
是在亦
是亦在
望良白內臥乎事是在亦
望良白內臥乎事是在亦

이 사전의 望 항을 보면, 望良을 주표제어로 내세우고, 望良白內臥乎事와 望良白內臥乎事是在亦 2개를 부표제어로 내세웠다. 그리고 是 항에서 是亦在 1개를 표제어로 내세웠다.⁹⁾ 『유서필지』의 「이두휘편」을 보면, 7자류에 望良白內臥乎事만 등재되어 있고, 3자류에 是亦在나 是在亦是 등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전의 ‘良’ 항에서는 조사 乙良이나 良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어미 良에 대한 것은 없다.

이 사전의 ‘白’ 항에서는 동사로 쓰이는 경우와 어미로 쓰이는 경우 모두 들어서 주석했는데, 선어말어미로 쓰이는 경우를 “……점양성을 나타내는 접미사의 하나이다.”라고 해서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사전의 ‘內’ 항에서는 이두 內에 관한 설명이 없다.

8) 한편 이 사전에는 向敎是事望良白內臥乎事是在亦是 이두 묶음도 向 항의 한 표제어로 내세웠다.

9) 是在亦是 올라 있지 않고, 〈대명물직해〉에 보이는 是在而亦是 올라 있다.

이 사전의 ‘臥’ 항에서는 이두 臥에 관해서, 음이 ‘누’라는 것만 밝히고 그에 관한 설명이나 주석이 없다. 臥乎는 표제어로 올라있지도 않다.

이 사전의 ‘乎’ 항에서는 이두에서 ‘-온, -을 / -오’로 읽힌다고만 밝히고 그에 관한 설명이나 주석이 없다.

이 사전의 ‘事’ 항에서는 이두에서 ‘일’로 읽힌다고만 밝히고 그에 관한 설명이나 주석이 없다.

이 사전의 ‘亦’ 항에서는 독음이 ‘여, 이여’라고 하는 것, 주격조사, 부사형성접사, 인용의 어미, 명령의 어미 등으로 쓰인다는 것을 밝혔다.

이 사전의 ‘在’ 항에서는 독음이 ‘견’이라는 것, ‘-인, -인 것, -인 사람’의 뜻으로 쓰인다는 것을 밝혔다.

(2) 기존 사전에 누락된 이두와 이두어, 주석 오류

① 的只【마기】 관련 이두어

的只는 예로부터 ‘마기’¹⁰⁾로 읽혀온 이두이다. 이 사전의 的 항에는 다음과 같은 이두어들이 등재되어 있다.

【的是 마기】 圀 “的只”와 같다.…….(제3권. 507쪽)

【的只 마기】 圀 확실하다. 정확하다. 的是.…….(제3권. 507쪽)

【的只白乎事 마기스온일】 圀 “的只乎事”와 같다.…….(제3권. 508쪽)

【的只是白乎事 마기이스온일】 圀 “的只乎事”와 같다.…….(제3권. 508쪽)

【的只是乎事 마기이온일】 圀 “的只乎事”와 같다.…….(제3권. 508쪽)

【的只臥乎事 마기누온일】 圀 “的只乎事”와 같다.…….(제3권. 508쪽)

【的只乎事 마기온일】 圀 확실한 일.…….(제3권. 508쪽)

이상과 같이 的是와 的只 외에 다섯 예를 들었다. 그러나 的只와 관련된 이두어는 많다. 위 예를 제외하고 몇 개를 더 들어본다. 이들도 사전에 모두 등재해야 한다.

的只倭音 的只敎事 的只敎是故 的只敎是乎所 的只敎是乎則 的只是如乎 的只是乎矣 的只是乎乃 的只是乎則 的只臥乎事是良尔 的只臥乎事是在果 的只爲白乎事 的只有乎事 的只行下敎是乎所 的只乎乃 的只乎所 的只乎矣

的是 관련 이두어도 추가해야 한다.

10) 이 ‘마기’는 제주방언 ‘마기’와 대응하는 것인 듯하다. 제주방언 ‘마기’는 일어날 일의 결과가 좋아지기를 바랄 때는 “마기 경허민 종주.(마기 그렇게 하면/되면 좋지.)와 같이 쓰이고, 일어난 일의 결과가 좋았어야 했는데, 좋지 않아서 마음에 차지 않을 때는 “마기 경헤시민 좋았주마는.(마기 그렇게 했으면/되었으면 좋았지마는.)”과 같이 쓰인다.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마기’가 등재되어 있는데, 「표준어 규정」 3장 4절 25항에서 ‘막상’만 표준어로 삼고, ‘마기’는 버린다고 했기 때문에, ‘마기’는 “‘막상’(어떤 일에 실제로 이르러)’의 잘못”으로 설명하고 있다.

的是去乎 的是𡵓 的是白遣 的是白如乎 的是白乎 的是白乎乃 的是白乎喻 的是白乎矣 的是如乎 的是喻 · 的是乙喻 · 的是隱喻 的是在 的是置 的是乎乃 的是乎𡵓

한편 이두 的只와 다른 차자어 的只【막이】, 的只板【막이널】, 前的只【앞막이】, 後的只【뒷막이】, 前的只板【앞막이널】, 後的只板【뒷막이널】도 등재되어야 한다.

左右杉板各三 道里前的只十二立 後的只四立……左右杉板各六 道里前的只板六立 後的只板八立 <『黃海水營啓牒(1900)』 권1, 甲戌十一月初六日申時封>

② 無 관련 이두와 이두어

이 사전에는 無 관련 이두와 이두어로 다음과 같이 20여 어가 등재되어 있다. 꽤 많은 이두어가 등재되어 있다.

無去等 無去沙 無去有等以 無去有乙 無去乙 無白去等 無白有齊 無白乎𡵓 無不冬 無不冬爲白齊 無亦 無在 無在事乙 無在乙 無在乙良 無齊 無乎事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들은 ‘없-’의 혼독자인 無를 표제어로 등재하고, 이 표제어 밑에 부표제어로 이들은 등재시켜야 한다. 그런데 無去等, 無去沙 등은 가나다 순에 따라 표제어로 등재했는데, 無白去等과 無白有齊 등은 한자어 표제어인 無白 밑에 부표제어로 등재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두와 이두어 표제어와 부표제어 등재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부표제어는 관련이 있는 표제어에 딸려서 배열되어야 하는데, 한자어 無白과 이두어 無白去等은 관련이 없는 것이다.

한편 다음 예문 등에서 확인되는 無遣, 無遣在, 無遣在是如, 無遣在是如爲去乙, 無遣在是如爲有昆 등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데, 수정 증보 사전에는 등재해야 한다.

四張付油芑二浮等乙 前矣段 前排油芑以取用爲如乎 節段 前排油芑無遣在是如 他條以 取用無路 <『懿仁王后山陵都監儀軌』(1601) 甘結, 七月二十四日>

丙午年天使時 所用 銀器無遣在是如爲有昆 先運天使時 銀鉢里 · 銀匙貼 · 銀匙筋各二部 造作 銀子幾至八十四兩六錢是𡵓 <『迎接都監雜物色膳錄』(1608~1610)>

徽陵段 無遣在是如爲去乙 行關查問 則參奉牒呈內 <『思陵都監儀軌』(1699) 己卯二月十三日 戶曹了>

③ 표제자, 표제어, 주석 등의 오류

中 가운데 중 〔吏讀〕해. -에. 장소를 나타내는 토로 쓰였다. <『壬辰狀草, 萬曆20年7月15日』> 倭人四百餘名, 量勢窮力盡, 自知離逃, 閑山島良中, 棄船登陸. …… (제1권 121쪽)

良 어질 량 〔吏讀〕-란, -랑. -라. …… (제3권 941쪽)

良中【아히】**圀** -에, -에서, -에게, …… (제3권 943쪽)

위에 보이는 이두 中은 예문을 보면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반드시 良中과 같이 쓰였다. 그러므로 良과 中을 분리하여 각각 따로 표제어로 처리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다면 따로 주석을 달 필요가 없다. 만약 따로 주석을 단다면 中은 이두에서 良中의 일부로 쓰인다고 하고,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良中을 참고하라면 될 것이다.

丫 가장귀 아 **更譜** -에. 행동의 방향을 나타내는 토로 쓰인다. 《壬辰狀草, 萬曆20年4月16日》 先鋒倭人段, 東萊丫到來. (제1권 121쪽)

了 마칠 료 **更譜** -로. -으로. 《瀋陽狀啓, 庚辰10月初5日》 十月初一日, 朔膳入來時, 戶部了, 咨文一道, 平安監司軍官朴時亮賁來爲白有如乎. …… (제1권 180쪽)

위에 보이는 표제어와 예문의 丫는 了를 잘못 기록한 것이다. 了를 쓰는 과정에서 丫와 같이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더라도 사전에서는 바로 잡아줘야 한다.

Ⅲ. 修訂・增補 辭典의 방향

1. 추가해야 할 고유 한자

현재 확인되거나 등재되지 않은 한국 한자는 매우 많다. 다행히 최근에는 여러 문헌이나 고문서가 인터넷을 통해 원문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독할 수 있는 연구원을 두고서 등재되지 않은 한자와 한자어를 찾아서 등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小乙【솔】

‘솔’의 표기로 𪛗은 등재되어 있지만, 小乙은 등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다음 자료에서 보듯이 小乙과 小乙五 등에서 【솔】로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壹兩貳錢 修掃所用小乙回介價 〈『攄下會計』(1900) 권10, (辛丑)六月二十五日〉

碑閣九間所入……小乙五七十六箇 大工二坐 〈『肇慶壇濟慶墓永慶墓營建廳儀軌』(1900) 권1, 工役〉.

小乙	𪛗五	所比同	𪛗同	𪛗同
----	----	-----	----	----

(2) 𪛗【쑈】, 所𪛗【쑈】

‘쑈’의 𪛗이 쓰였는데, 이 사진은 물론 『동아 한한대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훈글에는 𪛗이 등재되어 있다.

竹鞍馬…… 鞍子 於赤 月乃 前後𪛗同 占佛 周皮六鞍轡 𪛗皮音雙差 〈『莊獻世子永祐園遷奉都監儀軌(1789) 二房儀軌, 造成秩, 凶儀仗〉

이 예문에 보이는 𪛗同은 ‘가슴걸이(말의 가슴에 걸어 안장에 매는 가죽끈)’에 대응하는 옛말 ‘쑈동’(쑈동 曰纒 〈『훈몽자회(예산 문고본)』(1527) 중:12〉)에 대응하는 차자표기로 쓰였다. 지명 𪛗達山, 𪛗灘(交灘) 등에서도 확인된다.

의궤류에서 확인되는 所𪛗同·所𪛗簡【쑈동】, 所𪛗同匠【쑈동장】¹¹⁾, 지명 所𪛗古谷 등에서는 所𪛗【쑈】이 확인된다.

竹鞍馬…… 鞍子 於赤 月乃 前後所𪛗同 占佛 周皮六鞍轡 𪛗皮音雙差 〈『莊獻世子永祐園遷奉都監儀軌(1789) 二房儀軌, 造成秩, 凶儀仗〉

(3) 𪛗【뎃】

𪛗은 훈글이나 네이버 한자사전 등에서 ‘갓’으로 읽고, 우리나라 한자라 했다. 그러나 𪛗防·𪛗枋·𪛗方 등은 ‘뎃방(뎃댄 지방)’의 차자표기이지, ‘갓방’의 차자표기가 아니다. 加𪛗方은 ‘더뎃방’의 차자표기이다. 𪛗과 관련된 차자어는 𪛗平【뎃평 : 뎃평고대】, 𪛗耳【갓귀】, 𪛗斗【뎃말?】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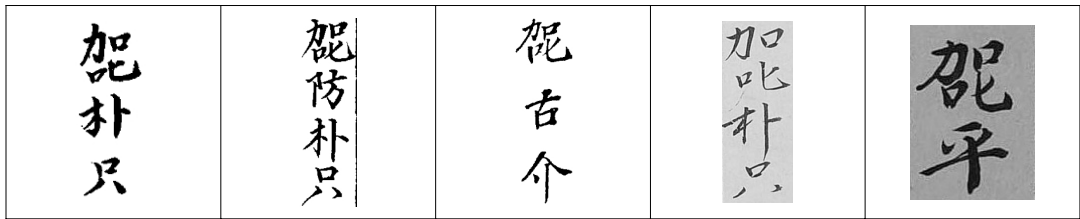
移安廳一間造作所入…… 𪛗方次邊板八立 〈『懿昭世孫懿昭廟營建廳儀軌(1752)』 手本秩, 壬申九月日〉
進上簇子玉軸造作緣莊所入 小𪛗二 𪛗耳二 大𪛗二 刀𪛗一 小串釘六 〈『光海君私親誌石改修都監儀軌(1618)』 丙辰四月十九日〉

刻刀六箇 長丁十箇 長串丁二箇 𪛗斗七箇 〈『墓所都監儀軌(1728)』 권2, 初頭鐵物打造進排秩〉

𪛗方과 관련된 𪛗方帶鐵【뎃방씨쇠】, 𪛗方朴只【뎃방박이】, 𪛗朴只【뎃박이】· 𪛗朴只鐵【뎃박이쇠】 등도 당연히 새로 등재해야 한다.

𪛗은 인명에서 𪛗金, 𪛗等, 𪛗同, 𪛗男, 𪛗福, 𪛗孫, 𪛗今 등으로도 쓰이고, 지명에서 𪛗古介, 𪛗文山 등으로도 쓰였다.

11) 뎃 쑈동 일씩 낫과 〈『변역노집대』(1517) 하:69〉. 쑈동 曰纒 〈『훈몽자회(예산 문고본)』(1527) 중:12〉. 所𪛗同의 𪛗은 所 밑에 붙은 표기이다. 그런데 同 앞에 붙은 것(間)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잘못 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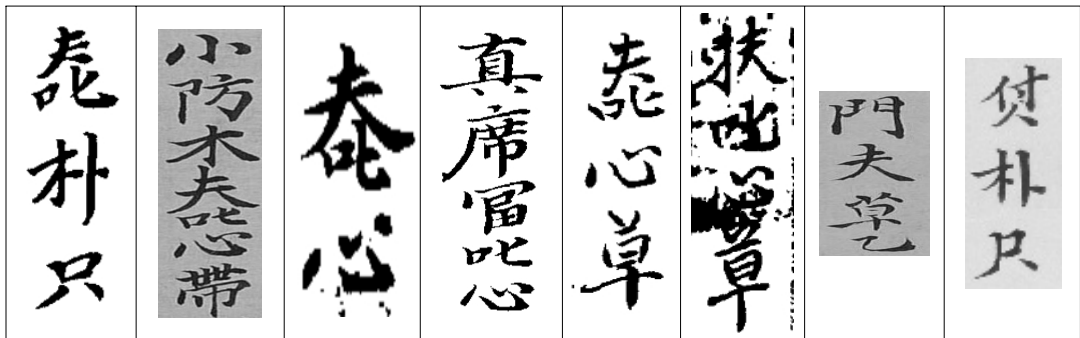
(4) 夫叱【붓】, 浮叱【붓】, 扶叱【붓】, 富叱【붓】, 北叱【붓】, 付人【붓】

이 사전에는 우리말 ‘붓’의 표기에 쓰는 한국한자로 ‘付叱【붓】’을 등재하고 付叱朴只를 등재해 놓았다. 그러나 付叱朴只에 대응하는 다른 표기 夫叱朴只와 浮叱朴只, 扶叱朴只, 付人朴只 등에 쓰인 夫叱【붓】과 浮叱【붓】, 扶叱【붓】, 付人【붓】 등은 등재되어 있지 않다. 富叱心의 富叱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

付叱【붓】은 付叱朴只 외에 付叱恣에서도 확인된다.

夫叱【붓】은 夫叱心과 夫叱心草, 夫叱心席, 夫叱心帶, 夫叱恣 등에서도 확인된다.

富叱【붓】은 富叱心에서 확인된다. 扶叱【붓】은 扶叱心草에서 확인된다. 北叱은 北叱心과 北叱心草 등에서 확인된다.



(5) 恣【찰/찰/찰/찰】, 草乙【찰】

아래 예문에 보이는 扶恣木의 扶恣과 門浮恣의 浮恣, 夫叱恣 외에 夫恣, 付叱恣 등에서 확인되는 恣은 한자사전에서 ‘찰’의 음역자로 소개되고 있으나, 이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砧家今方修理爲如乎 方下木・腰木・扶恣木・臼等物及洵匠所用 石磨二部等例自繕工監進排爲如乎
 〈『顯宗殯殿都監儀軌』(1675) 魂殿修理所, 甲寅九月十二日〉

門一隻 左右夫叱恣小椽木二介 〈『景宗國葬都監都廳儀軌』(1724) 권下〉

門浮恣小條伊二箇 〈『宗廟改修都監儀軌』(1725) 권1, 後〉

門夫草乙八次小條里二箇 〈『懿昭廟營建廳儀軌』(1832)〉

인명의 盜福, 지명의 加盜峯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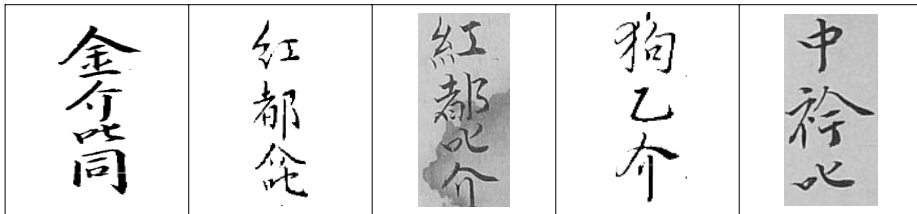
(6) 기타

𪛗【갯】: 𪛗同, 𪛗知 (이상 인명), 紅都𪛗【홍돏갯】(도구)

都𪛗【돏】: 紅都𪛗介【홍돏개】

狗乙【굴】: 狗乙介·狗乙箇【굴개】

衿𪛗【깃】: 中衿𪛗【등깃】



한편 ‘네’를 표기한 𪛗伊(예: 餅𪛗伊【썩메】), ‘쇠’를 표기한 金伊(예: 金伊手【쇠손】) 등에서 확인되는 𪛗伊와 金伊를 사전에 올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서 확인되는 伊는 ‘쟁이’의 옛말 ‘괭이’를 표기한 𪛗伊에서 확인되는 伊와는 달리 반모음을 표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2. 수정 증보되어야 할 독음과 주석

(1) 𪛗【술·숏】, 𪛗【얼·늘·엇】, 𪛗【엇·얼】

𪛗과 𪛗은 이미 각각 ‘술’과 ‘얼·늘’로 읽힌다는 것이 이 사전에 밝혀져 있다. 다만 𪛗 관련 예문은 없고, 𪛗과 관련해서는 𪛗骨障子와 𪛗尾里, 𪛗只¹²⁾ 등 세 예가 제시되어 있다. 한편 𪛗도 음이 ‘엇’이라는 것이 밝혀져 있다. 그와 관련된 예는 𪛗弄과 𪛗尾里 두 예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所𪛗同과 所𪛗箇, 𪛗同, 𪛗登 등이 동일한 【숏동>숏동】의 표기라는 데서 𪛗은 ‘숏’으로도 읽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𪛗骨과 𪛗骨이 동일한 【얼골】의 표기라는 데서 𪛗은 ‘엇’으로 읽혔다고 할 수도 있다. 어쩌면 所𪛗과 𪛗의 음절말자음 ‘스’를 표기한 𪛗을 더 줄여서 쓴 것이 ‘乙’과 같이 표기한 것일 수도 있다.

𪛗【술】은 𪛗【술】과 馬尾𪛗【물총술】, 造來𪛗【조리술】, 篩𪛗【체술】, 綯𪛗【김술?】, 𪛗竹【술대】, 𪛗木【술목】, 猪毛𪛗【돼지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명 표기의 𪛗德, 𪛗今, 𪛗男, 𪛗同, 𪛗老味, 𪛗立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𪛗【얼】은 𪛗骨【얼골】·門𪛗骨【문얼골】, 窓𪛗骨【창얼골】, 戶𪛗骨·之介𪛗骨【지계얼골】, 障子𪛗骨【장주

12) 𪛗其와 於乙其도 ‘얹이’의 표기로 쓰였기 때문에 추가되어야 한다. 𪛗兒는 ‘얹레’의 표기로 쓰였다. 𪛗介는 ‘얹개’의 표기로 쓰였다. 의궤류의 “銅𪛗於乙介蓋具”에 보이는 銅𪛗於乙介의 𪛗於乙介도 【마늘개】를 표기한 것인 듯하다.

얼굴>장지얼굴】，行閣𩑦骨【--얼굴】，窓戶𩑦骨【--얼굴】，板門𩑦骨【板門𩑦骨】，光窓𩑦骨【--얼굴】，箭窓𩑦骨【살창얼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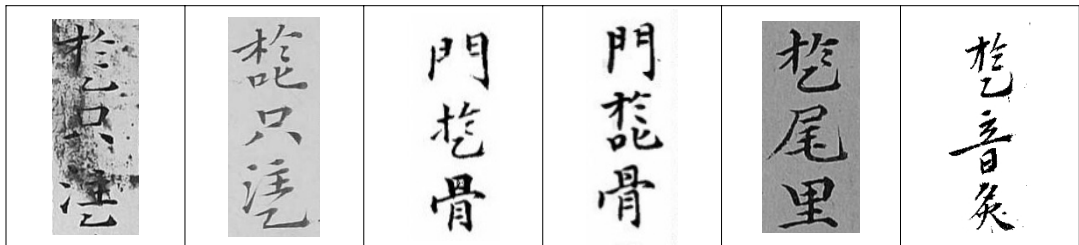
쨌믈【엷이】에 대응하는 표기로 𩑦尾里·𩑦未里【엷미리】에 대응하는 표기로 𩑦尾里【엷미리?】이 쓰였으므로, 이 예들의 쨌은 ‘엷’으로 쓰인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물론 𩑦尾里에 대응하는 彦尾里·僊尾里·焉尾里·彦味里【언미리】도 쓰였기 때문에 현실음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표기되었을 수도 있다.

또한 門𩑦骨【문얼굴】에 대응하는 표기로 門𩑦骨【문엷골?】¹³⁾이 쓰였으므로 이때의 𩑦은 ‘얼’의 표기로 쓰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쨌이 【늘】의 음이 ‘늘’인 경우는 주로 인명과 지명에 쓰인다고 하고, 𩑦朴과 𩑦魚里를 예로 들었다. 그러나 음식 어휘 𩑦音炙·於音炙【느름미적>누루미적】，건축 어휘 𩑦平【늘평】을 표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주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2) 於【어·느·늘/누·늘】

이 사전에서 於를 찾으면 ‘늘 어, 감탄사 어’라는 대표 훈과 음을 들고서, 바로 한국 한자어의 예를 들었다. 그런데 於는 차자 표기에서 ‘어’의 음가자로 쓰이기도 하지만, ‘느’ 또는 ‘늘’, ‘누’ 등을 반영한 훈가자로도 많이 쓰였다. 그런데 훈가자와 관련된 예는 於里音·於伊音【느림】밖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수정·증보판 사전에는 於가 차자에서 ‘늘’로 읽힌다는 주석을 덧붙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예를 여럿 반영해야 한다. 가령 於音은 현대국어 ‘누르미(인절미를 납작하게 눌러 구운 음식)’에 대응하는 차자표기이다. 이와 관련된 차자어만 하더라도 於音布【누르미베】，於音湯【누르미탕】，於音炙·𩑦音炙【누르미적】 등이 있다.

於音次軟豆泡三塊式乾正果七合式 <『迎接都監雜物色儀軌(1643)』九月初十日稟目>

三味 生鮮於音湯 中生鮮二尾式 <『迎接都監雜物色儀軌(1643)』司饗院所掌移屬>

13) 『영조정순왕후 가례도감의궤』 번역본에는 𩑦骨을 ‘엷골’로 번역해놓았는데, 이것은 ‘얼굴>얼굴’로 번역해야 한다. 현대국어 사전에는 ‘문얼굴’과 ‘문뜰’이 표준어로 등재되어 있다.

泡匠所用 於音布十五尺 白苧布四幅 袂一七尺 俗一等依前例進排事 <『仁宣后殯殿魂殿都監儀軌(1674)』
殯殿一房, 殯殿各差備手本秩, 甲寅二月二十七日>

한편 앞의 於里音·於伊音【느림】과 관련된 것으로 於音鐵·於音金【느림쇠】, 於音釘【느림문>느림못】도 있다.

於音釘次柯柴木六箇 <『高宗太皇帝御葬主監儀軌(1919)』 권2, 治諫合木所入>
於音金三十箇 <『文祖綏陵山陵都監儀軌(1846)』 권2 爐冶所儀軌, 稟目, 丙午閏五月初六日>

3. 추가되어야 할 차자어

고유어의 차자표기는 무궁무진하다. 어떤 자료를, 얼마만한 자료를 뒤져서 등재하지 못한 어휘 표기를 찾아냈느냐에 따라 추가해야 할 차자어 또한 무궁무진해진다. 수정·증보판 사전에는 당연히 누락되어 있는 차자어를 찾아서 등재해야 한다.

차자어의 독음을 찾아내고,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사전에 등재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차자어의 독음을 추정할 수 있는데, 그 뜻이 확실하지 않은 자료들을 등재할 것인지, 말 것이냐 하는 것이다. 또한 차자어인 듯한데, 그 독음도 추정하기 어렵고, 그 뜻도 추정하기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할 것이 하는 것도 문제다. 이런 차자표기에 대한 독음이나 의미 파악은 한두 학자나 연구자가 찾아내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건축 어휘에 쓰인 遠音은 현대국어에서도 ‘머름’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 이전 독음도 【머름】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추론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 어휘는 이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어휘에 대응하는 ㄱ乙險, ㄱ乙軒, 末乙舍 등은 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전문 연구자들은 이들 어휘가 遠音【머름】에 대응하는 차자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들의 독음은 차자표기를 고려하여 ㄱ乙險【말험】, ㄱ乙軒【말현】, 末乙舍【말힘】 정도로 밝혀낼 수가 있을 것이다. 비전문가들은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이런 것들도 당연히 새로 등재해야 한다.

한편 擧乙案之·擧案支·擧案之·擧安支·鬯安之·乞案支 등은 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 【걸안지】를 표기한 것인지, 【들안지】를 표기한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 또한 그 뜻이 무엇인지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한편 복합어(파생어와 합성어)도 차자어로 등재할 때, 해당 한자가 선행할 때의 어휘만 등재하지 말고, 해당 한자가 후행하는 어휘도 등재해야 한다. 가령 차자어 𪛗 𪛗에서 𪛗骨만 등재하지 말고 門𪛗骨, 障子𪛗骨, 板門𪛗骨【-얼굴】 등의 어휘도 등재해야 효용성이 큰 사전이 될 것이다.

(1) ㄱ乙險【머험】, ㄱ乙軒【머헌】, 末乙舍【머험】

通慶門內 行閣二間 修理所入 假柱四介次材木四條 ㄱ乙軒二間材木二條 〈孝宗殯殿都監儀軌(1659) 魂殿二房, 己亥九月初二日〉

本所所掌床卓 仍修補所入 龕室ㄱ乙險十二間 每間童子ㄱ乙險等 付接所入 并以磨鍊手本 後錄爲去乎 〈永寧殿修改都監儀軌(1667) 手本秩, 丁未六月初六日〉

龕室流音所入……童子朴只一寸五分釘四十箇 末乙舍丈夫朴只一寸五分釘四十箇 小欄朴只五分釘四百六十箇 〈南別殿永禧殿重建廳儀軌(1677) 一所, 丁巳六月初八日〉

현대국어의 ‘머름’(바람을 막거나 모양을 내기 위하여 미닫이 문지방 아래나 벽 아래 중방에 대는 널조각)에 대응하는 차자표기는 遠音【머름】으로 표기되었다. 이 ‘머름’은 ‘윗머름’과 ‘중머름’, ‘알머름’ 등이 있는데, 각각 上遠音, 中遠音, 下遠音 등으로 표기되었다. 그런데 이 사전에는 정작 遠音, 上遠音, 中遠音, 下遠音 등은 등재되어 있지 않고, 遠音童子, 遠音石, 遠音竹, 遠音着固, 遠音板 등만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遠音廳板, 遠音中方·遠音中防, 遠音精板, 遠音槩, 遠音小欄 등도 등재되어야 한다.

한편 17세기 의궤에서 ‘머름’에 대응하는 차자표기가 遠音으로 표기된 뒤에 20세기 초반 문헌에까지 쓰였다. 그러나 17세기 일부 의궤에서는 우리말 ‘머름’보다 앞선 형태를 반영하는 차자표기인 ㄱ乙險과 ㄱ乙軒, 末乙舍 등과, 이와 관련된 童子ㄱ乙險, 末乙舍丈夫 등도 확인되는데, 이것도 당연히 등재되어야 한다.

(2) 風波金·風波鐵·風破金, 風波外·風破回·風破回金·風波回鐵·風破回鐵, 風波板, 風波錠

風破外三十六介 〈『昭顯世子墓所都監儀軌(1645)』 啓辭, 五月十四日, 爐冶所打造秩〉

風波金六百四十介……風波錠六百四十介 〈『儲承殿儀軌(1648)』 實入雜物秩〉

風波金六十四箇[鐵染] 風波金朴只二寸廣頭釘六十四箇[鐵染] 〈『墓所都監儀軌(1728)』 권2, 稟目秩〉

齋室撤毀……中門四隻風破金具……合鐵物風破回金四十四介釘具 〈『垂恩廟營建廳儀軌(1764)』 稟目秩〉

이 예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風波金·風波鐵·風破金, 風波外·風破回·風破回金·風波回鐵, 風波板, 風波錠 등은 여러 차자표기 가운데 하나인데, 이 사전에서는 어느 하나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 모두 조선시대 궁궐이나 묘소 따위에 들어가는 철물이다.

현대국어 사전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예를 확인할 수 없다. 굳이 대응시킬 수 있는 예를 찾는다면, 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風鐵(장식으로 쓰기 위하여 구멍을 뚫거나 음각을 한 얇은 쇠조각)을 대응시킬 수 있을 듯하다.

그런데 風波外와 風破回, 風破回金, 風波回鐵 등, 그리고 風破回釘具三十二介, 風破回四十八箇釘具 등과 같은 의궤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을 단순한 고유 한자어로 처리할 수도 없다. 破回와 波回는 현대국어 ‘바퀴(둥글게 만든 물건)’에 대응하는 옛말 ‘바회’박회’에 대응하는 차자표기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당연히 차자어로 등재해야 한다.

(3) 擧乙案之 · 去乙安之 · 巨乙案支 · 擧乙按之 · 擧案支 · 擧案之 · 擧安支 · 𠵽安之 · 𠵽案支 · 擧案支 · 巨安支 · 巨案支

(長杠)機二雙……梁木次去乙安之并以眞椽木三介 <『肅宗國葬都監都廳儀軌』(1720) 권2>

大方牀一坐所入……長擧案支木二[用松木各長六尺五寸廣五寸高六寸長杠上正中上下排置着石礪朱漆頭面以丁粉畫太平花] 短擧案支木四[用松木各長一尺五寸廣五寸高六寸長杠上大擧案支間左右各設二着石礪朱漆頭面以丁粉畫太平花] <『慶嬪禮葬所謄錄』(1907) 發引時造作秩>

擧乙案之 · 去乙安之 · 巨乙案支 · 擧乙按之 · 擧案支 · 擧案之 · 擧安支 · 𠵽安之 · 𠵽案支 · 擧案支 · 巨安支 · 巨案支 등은 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이 표기들은 주로 의궤류에서 확인되는데, 大方牀……槩擧案之와 燭籠擧安之, 擔機前後擧案之 · 擔機前後𠵽安之 등과 같이 大方牀이나 大輦, 肩輦의 槩와 燭籠, 擔機 따위에 설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예문의 長杠上正中上下排置와 長杠上大擧案支間左右各設二 등을 통해서는 長杠의 위아래에 설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大擧安支와 小擧案支, 長𠵽案支 · 長𠵽安支와 短𠵽案支 등과 같이 크고 작은 것, 길고 짧은 것 등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또한 𠵽安之松木과 造泡擧案之二次松板一立, 槩擧安之貳次材木貳介, 長𠵽案支木과 短𠵽案支木 등을 보면, 이것은 松木이나 松板, 材木, 木 등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표기들은 【걸안지】의 표기인지, ‘거란지(소의 꿈무늬)’와 ‘거란지뻘’에서 확인되는 ‘거란지’와 의미상 통하는 것인지 등을 밝혀내야 한다.

그런데 『英祖國葬都監都廳儀軌』(1776) 권1에서 大輦를 설명하면서, 橫木(가로질러 놓는 나무)을 속명으로 擧案支라 한다는 단서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長橫木을 大擧案支라 하고, 短橫木을 小擧案支라 했다는 단서를 제공해준다. 이러한 단서는 기존 사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이 어휘를 주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¹⁴⁾

大輦……長橫木【俗名大擧案支】於長杠中央正方處前後各一橫木 兩間又設小橫木四【俗名小擧案支】<『英祖國葬都監都廳儀軌』(1776) 권1>

(4) 付叱心 · 夫叱心 · 富叱心【붓심】, 付叱心草 · 夫叱心草 · 富叱心草【붓심새】, 付叱心木 · 夫叱心木 · 富叱心木【붓심목】 / 付+叱心帶 · 夫叱心帶 · 富叱心帶【붓심띠】, 付叱心席 · 夫叱心席 · 富叱心席【붓심자리】 / 付叱心槐木 / 附心【붓심】, 附心草【붓심새】 / 北心 · 北叱心【붓심】, 北心草 · 北叱心草【붓심새】 / 夫心草【붓심새】 / 扶叱心草【붓심새】

永寧殿破屋時所用……付叱心次 空石一百六十立 用還次以上下進排事<『永寧殿修改都監儀軌』(1667) 手本秩, 丁未閏四月十七日>

修改時所用 夫叱心草 · 空石 · 稿索及役事所用 削刀 · 刃加羅 · 裸伊 · 平錘等物 令本道預先措置進排

14) 필자도 이 어휘의 의미 파악에 애를 먹다가 우연히 이 자료를 보게 되면서 의문이 풀렸다.

爲白齊 〈『莊陵修改都監儀軌』(1699)〉

위에 보이는 차자어들 모두는 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付叱心·夫叱心·富叱心은 【붓심】, 付叱心草·夫叱心草·富叱心草 등은 【붓심새】, 付叱心木·夫叱心木·富叱心木 등은 【붓심목】, 付叱心帶·夫叱心帶·富叱心帶 등은 【붓심씨】 정도로 읽을 수 있다.

현대국어사전에서는 이에 대응할 만한 어휘를 찾을 수 없다. 다만 ‘짚북데기(짚이 아무렇게나 엉킨 북데기)’의 잘못으로 등재되어 있는 ‘짚북세기, 짚북세미’의 ‘북세미’가 이와 관련된 것이다.

의미상으로는 표준어 ‘짚동’(짚단을 모아 한 덩이로 만든 묶음)과 통한다. 제주방언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짚동, 북세미, 북심’ 등이 전하는데, 이들 어휘가 위 차자어에 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北心과 北心草만을 봤을 때는 각각을 【북심】과 【북심새】의 표기로 파악할 수 있으나, 北叱心과 北叱心草를 확인하고서는 이들 모두가 【붓심】과 【붓심새】의 표기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叱을 표기에서 생략했다고 할 수 있다.

付叱心帶·夫叱心帶·富叱心帶【붓심씨】의 경우, 付叱心과 夫叱心, 富叱心 등에 帶가 덧붙어서 표기된 것이다.

付叱心席·夫叱心席·富叱心席【붓심자리】의 경우, 付叱心席具와 같이 표기했으니, 付叱心과 席으로 나누어서 付叱心【붓심】과 席【자리】로 봐야 할 경우도 있다.

(5) 所叱同·所叱箇·所箇【숫동】, 所登·蘇登【숫등】, 𪛗登【숫등】

竹鞍馬四……前後所叱箇六 所入白馬髻二斤 〈『仁敬王后國葬都監都廳儀軌』(1681) 권2 凶儀仗〉
其中鞍枝裹魚皮 及粧飾月乃 前後所叱同 修補取色仍用爲遣 〈『景宗王世子冊禮都監儀軌』(1690)〉

위 예문에서 확인되는 所叱同·所叱箇·所箇 등은 ‘가슴걸이(말의 가슴에 걸어 안장에 매는 가죽끈)’의 옛 말 ‘숫동’에 대응하는 차자표기이다.

즈셔피로 다하 두 짝 어울운 굴에에 숫동조차 잇고 〈『변역박통사』(1517) 상:28〉
말 숫동 일빅 낫과 〈『변역노걸대』(1517) 하:69〉
숫동 曰纓 〈『훈몽자회』(예산 문고본)(1527) 중:12〉

이 ‘숫동’에 대응하는 차자표기는 17세기와 18세기 의궤류에서 所叱同·所叱箇·所箇 등으로 표기하다가, 18세기 중반부터 蘇登이나 所登, 18세기에는 𪛗登까지도 확인된다. 이로 보아 변화하면서 19세기까지 쓰였는데, 20세기 표준어에 등재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세기 초반에 사어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차자표기들은 이 사전에 전혀 실리지 않았다.

(6) 扶恣·浮恣·夫叱恣·付叱恣·夫恣【*부출】부출】부출, 夫草乙【부출】, 門浮恣【문부출】문부출, 門夫草乙【문부출】

本所所掌砧家今方修理爲如乎 方下木腰木扶恣木臼等物 及泡匠所用 石磨二部等 例自繕工監進排爲如乎 <『顯宗殯殿都監儀軌』(1675)>

柱八……門浮恣小條伊二箇 <『宗廟改修都監儀軌』(1725) 권1>

위 예문에 보이는 扶恣木의 扶恣과 門浮恣의 浮恣 외에 夫叱恣, 夫恣, 付叱恣, 夫草乙 등은 근대국어에서 확인되는 ‘부출’, 현대국어의 ‘부출(1.가구 따위의 네 귀퉁이에 세운 기둥. 2.뒷간 바닥의 좌우에 깔아 놓은 널빤지)’에 대응하는 차자표기이다. 恣은 한자사전에서 ‘찰’의 음역자로 소개되고 있으나, 이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의궤류의 門浮恣, “沙立門一隻 左右夫叱恣次小椽木二箇”, “長木層橋一部次左右夫恣次長大條里木二介” 등에서 보면, ‘부출’은 문이나 사립문, 層橋의 좌우에 대는 나무기둥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명의 恣福, 지명의 加恣峯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7) 기타

이외에도 地乙介, 地乙介木, 地乙介支木, 地乙介木軍 등에서 확인되는 地乙介, 근대국어와 현대국어의 ‘간지개’(稍繩 간지개 <『한청문감』(1770?) 5:23>)에 대응하는 看知乙介와 干之介·干之箇, 沙乙介·髮介·士乙介·芰介, 沙乙介石·髮介石·士乙介石·芰介石,¹⁵⁾ 砧士乙介·砧芰介, 臼砧士乙介·臼砧芰介, ‘채열’채열에 대응하는 鞭悅, ‘채딕’채직에 대응하는 鞭直, ‘안장’의 옛말인 ‘소부리’에 대응하는 所夫里·所甫里 등도 당연히 등재되어야 한다.

이 사전에 누락되어 있는 차자어의 수는 아주 많다. 모두 수록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헌에 나오는 것은 가능한 한 수록하기를 바란다.

IV. 마무리

『韓國漢字語辭典』을 수정 증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현재 되어 있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전을 자주 이용하는 전문가가 보기에는 많이 미흡하다. 이두자를 누락한 것은 거의 없는 듯하지만, 이두어는 누락된 것이 많다. 더욱이 이두어를 표제어로 올릴 때는 형태 묶음을 하 나로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형태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것을 표제어로 올려, 주석을 하고 예문을 넣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

15) 현대국어 ‘사개’(모서리 따위에 끼워 맞추려고 만든 것)에 대응하는 표기이다.

또한 여러 고문헌에서 확인되는 차자를 수록하지 못한 것도 많고(기껏해야 수십 개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차자어를 수록하지 못한 것도 많다. 차자어는 고문헌을 볼 때마다 부지기수로 나타난다. 아무리 두꺼운 국어사전이나 다른 사전을 찾아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매우 많다.

『한국한자어사전』을 수정하고 증보할 때는 수록되지 않은 이두어, 수록되지 않은 고유 한자와 이 한자가 포함된 차자어 등을 찾아서 등재해 줬으면 한다. 그리고 표제어와 부표제어 선정에도 유의해 줬으면 한다.

아울러 기존 사전에, 잘못 분석하여 표제어로 올린 것도 눈에 띄고, 독음을 잘못 단 것도 눈에 띈다. 주석을 잘못된 것도 많이 눈에 띈다. 이와 같이 기존 사전의 내용 가운데 수정해야 할 것도 많다.

이 발표를 마치면서 필자는 크게 두 가지를 주문한다.

첫째는, 기존 사전의 오류를 바로잡는 데 신경을 써 줬으면 한다.

둘째는, 기존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고유 한자와 이두, 그 고유 한자가 포함된 차자어와 이두어들을 가능한 한 많이 찾아서 등재해 줬으면 한다.

〈참고문헌〉

- 남풍현, 『차자표기법연구』, 단대출판부, 1981.
 남풍현, 『吏讀研究』, 태학사, 2000.
 남풍현, 『고대한국어 연구』, 시간의물레, 2009.
 남풍현, 『고대한국어 논고』, 태학사, 2014.
 남풍현, 『국어사연구』, 태학사, 2014.
 남풍현, 『한국어와 한자 문화의 만남: 한-중 언어접촉론』, 월인, 2014.
 오창명, 「1407년 「長城監務關字」의 이두문 해독」, 『古文書研究』 7, 한국고문서학회, 1995.
 오창명, 「노비매매문기의 이두문과 이두 해독」, 『백록어문』 11, 백록어문학회, 1995.
 오창명, 「조선 전기의 吏讀項目 정리(1)」, 『古文書研究』 7, 한국고문서학회, 1995.
 오창명, 「『과거사목(科擧事目)』(1553)의 이두 연구」, 『고문서연구』 9, 한국고문서학회, 1996.
 오창명, 「조선 전기 吏讀의 國語史的 연구: 고문서 자료를 중심으로」,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96.
 오창명, 「조선 전기의 吏讀項目 정리(2)」, 『古文書研究』 8, 한국고문서학회, 1996.
 오창명, 「儀軌에 나타나는 차자 표기 연구(1): 조선 후기 복식 어휘를 중심으로(1)」, 『한국복식』 15, 단국대학교 석주선민속박물관, 1997.
 오창명, 「물명(物名)의 차자표기(借字表記) 연구(研究)(1): 『園幸乙卯整理儀軌』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3, 영주어문학회, 2001.
 오창명, 「仁政殿樂器造成廳儀軌」의 차자표기 연구」, 『영주어문』 6, 영주어문학회, 2003.

- 오창명, 「『제주도 고문서의 이두문과 이두 연구: 16세기 이두문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24,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4.
- 오창명, 「『火器都監儀軌(1615)』의 차자 표기 연구」, 『영주어문』 11, 영주어문학회, 2006.
- 오창명, 「의궤(儀軌)에 나타나는 고유 복식(服飾) 어휘: 17세기 의궤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73, 한국언어학회, 2010.
- 오창명, 「조선시대 고문서의 어휘: 규장각 본 『의인왕후비전훈전도감의궤』(1601)를 중심으로」,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2014.
- 오창명 · 손희하, 「『文禧廟營建廳廳錄』의 차자 표기 연구(1): 철물류 어휘를 중심으로」, 『국어사 자료와 국어의 변천』, 국어사학회 제19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국어사학회, 2005.
- 오창명 · 손희하, 「『西闕營建都監儀軌』 翻譯과 차자 표기의 解讀 오류에 대하여: 건축 관련 어휘를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36,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2005.
- 오창명 · 손희하, 「『문희묘영건청등록』의 차자 표기 연구(2): 목재류 어휘를 중심으로」, 『국제고려학』 11, 국제고려학회, 2007.
- 오창명 · 손희하, 「『儀軌』류의 고건축 어휘 해독과 건축 용어 선정」, 『호남문화연구』 42,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2008.
- 오창명 · 손희하 · 천득염, 「『서궐영건도감의궤』의 목재류 어휘 분석 연구」, 『건축역사연구』 16: 1 (통권 50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07.
- 오창명 · 손희하 · 천득염, 「『서궐영건도감의궤』의 철물류 어휘 분석 연구」, 『건축역사연구』 17: 2 (통권 58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08.
- 황금연, 「『儀軌』류의 한자차명표기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1997.

* 이 논문은 2016년 2월 26일에 투고되어,
2016년 3월 11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6년 3월 29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4월 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

Study Regarding Idu Script Language and Borrowed Character of a Dictionary of Korean Word Written in Chinese Character

Oh, Changmyeong*

This study is to give help to a Modifications and supplement of the Dictionary of Korean word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which published in 1990's Early to mid Dankook University.

And reviewed what it modifying and enlargement about a borrowed character and a The writing system with borrowed words, and Idu script languages about this Dictionary.

First of all checked what it was about to have to modify among a headword, explanatory note, example sentence of a borrowed character and The writing system with borrowed words in a existing dictionary. Next, what you should enlarge at existing dictionary discussed what there was about. Next, discussed about what you should enlarge at existing dictionary.

Indicated to things etc. that information regarding him was omitted at this dictionaries for 仍 and 仍 to be written to '-neo(ㄴ)-, -neu(ㄴ)-' etc. in our language borrowed character notation that stood up about borrowed character, or was not able to introduce well.

Discussed things etc. that a Reading sound being extremely modern, the explanatory note which presented to 𐄀飛箇 and 未飛介 etc. was not consistent that stood up about the writing system with borrowed words.

It checked to have to modify among a Idu script language headword and explanation, example sentence of a Idu script language of a existing dictionary.

Next, what you should enlarge discussed what there was about. This synthetic form to register 望良白內臥乎事是亦在 and 望良白內臥乎事是在亦 etc. in to a headword was the only about an Idu and a Idu script language, but discussed whether or not it was effective to register in.

It discussed registered an Idu form analysis type 望良-, -白-, -內-, -臥乎, 事, 是-, -亦在, -在亦, -在, -亦 etc. in one by one to annotate whether or not you were effective.

[Key Words] Dictionary of Korean Word Written in Chinese Character(韓國漢字語辭典), Idu(吏讀), Idu Script Language(吏讀語), Borrowed Character(借字), The writing system with borrowed words(借字語)

* Professor, Jeju International University